

불안애착이 심리적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Violence Victimization

송연주, 최가연, 박대순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Yeon-Joo Song(songyj@dsu.ac.kr), Ga-Yeon Choi(cgy1356@nate.com),
Dae-Sun Park(pds3502@police.go.kr)

요약

본 연구는 성인 남녀가 지각한 불안애착이 심리적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불안애착과 심리적 폭력 피해 간의 관계에서 관계중독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도시 및 J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성인 남녀 201명에게 불안정한 성인애착, 갈등책략 및 관계중독 척도를 실시하였고, 그 중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6명을 제외하고 195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불안애착, 관계중독, 심리적 폭력 피해 간에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불안애착이 심리적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불안애착이 관계중독을 통해 심리적 폭력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연인과의 테이트 시 심리적 폭력 경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폭력 피해 감소를 위한 상담 개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중심어 : | 불안애착 | 심리적 폭력 피해 | 관계중독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nxious attachment on psychological violence victimization and the role of relationship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violence victimization. To do this, 201 adults between 20~30 years old who live in G city and J area were administered anxious attachment, relationship addiction, and psychological violence victimization scal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2.0 for correlational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the structural equation for mediating effect validation was performed using AMOS 22.0. As a resul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anxious attachment, relationship addiction and psychological violence victimization. Also, the effects of relationship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showed full mediation effect. This suggests that anxious attachment may lead to psychological violence victimization through relationship addiction. Through this study, a counseling intervention method which is helpful to clients who have psychological violence victimization is presented. Based on the study,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 keyword : | Anxious Attachment | Psychological Violence Victimization | Relationship Addiction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1677)

접수일자 : 2019년 04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4월 29일

수정일자 : 2019년 04월 26일

교신저자 : 최가연, e-mail : cgy1356@nate.com

I. 서론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은 최근 몇 년 사이 폭행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란 교제중인 이성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한 사람이 상대방에 가하는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피해를 의미한다[1].

한국형사정책연구원[2]은 과거 10년간 살인사건으로 범피 피해를 당한 총 10,283명 중에서 가해자와 연인 관계인 경우가 전체의 10.3%인 1,059명임을 밝혔고, 데이트 폭력 발생 건수 역시 2017년 한 해 동안 1만 326건, 하루 평균 28.3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2~8.5%, 전문상담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2.0~3.2%에 불과하였다[3]. 이는 폐쇄적이고 친밀한 관계성이 피해자를 소극적인 대항에 그치게 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예속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4].

과거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심리적 폭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통제하거나 간섭하려는 욕구, 즉 심리적 폭력에서 시작된다. 이와 같은 심리적 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힘을 행사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르기를 강요하거나 통제하는 데서 비롯된다[5]. 심리적 폭력은 연인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폐해는 간과되어 왔다. 심리적 폭력의 폐해는 신체적 폭력처럼 가시적이진 않지만 내면적으로 오래 머물게 되어 그 고통은 더욱 심각할 수 있고, 신체적 폭력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 심리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간주되고 있다[7][8].

결혼을 앞둔 20~30대 젊은 층은 진로, 직업과 함께 미래 배우자에 대한 친밀감 형성에 주된 관심을 갖는 시기로 데이트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경찰청에서 2016년 2월 한 달간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 결과,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연령대는

20~30대가 58.3%로 가장 많았고, 평균 재범률은 7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 약 35%의 학생들이 폭력을 경험하였는데[10],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의 약 78%가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는 20~30대 미혼 성인 남녀의 데이트 폭력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심리적 폭력이 연인 사이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심각성에 기초하여 결혼을 앞둔 성인 남녀의 심리적 폭력 피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데이트 폭력 발생 요인에 대한 연구는 Dardis와 Dixon, Edwards, 및 Turchick[12]의 관점에서 사회구조적 이론, 사회학습 이론, 개인차 이론으로 구분되어 왔다. 사회구조적 이론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원인을 가부장적 사회시스템의 결과로 보았고,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행동관찰, 모방, 모델링에서 폭력의 원인을 살폈다. 개인차 이론에서는 개인의 애착문제나 경계선 성격 특질 등을 폭력의 원인으로 보았다. 특히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 애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13-17], 데이트 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애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abcock 등[13]은 불안애착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격성향을, 회피애착은 친밀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방어성향의 특징을 보는데, 특히 불안애착을 갖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을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 더욱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폭력성이 수반된 불안애착은 데이트 폭력 가해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지만[2], 데이트 폭력 피해 요인으로도 간주되고 있다. 상대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의심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련되어 있고[18],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 데이트 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애착외상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거나[20] 연인 관계에서의 부적응적인 대처방식 개선[21]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불안애착과 심리적 폭력 간의 관련성은 기혼 성인 남녀에게서 확인되고 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혼 남녀 사이에서 불안애착은 심리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6][22], 특히 성인 여성의 집단에서 책임 귀인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혼을 앞둔 20~30대 성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불안애착과 심리적 폭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심리적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매달리는 행동패턴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23][24]. 관계중독(Relationship Addiction)이란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해로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과 무조건 함께 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지니며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25][26].

불안애착은 관계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 Hazan와 Shaver[27]는 불안애착을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걱정하는 강박적 관계 집착의 형태로 바라보았다. 불안정 성인애착 유형 중에서도 두려움 형이 관계중독 수준을 높이는데, 이는 타인에게 버림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 맺고 있는 관계가 해로울지라도 자신의 욕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관계유지에 애쓰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28]. 불안정 애착 중에서 애착불안은 애착회피에 비해 관계중독에 쉽게 영향 받는 것으로 밝혀졌으며[29],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병리적인 자기애의 발달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과시주의적인 소망과 이상화된 부모원상을 보이는 등 관계중독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았다[31]. 즉,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이 형성될 경우 타인에게 버림받는다든가 불안으로 강박적 관계에 몰두하거나 강한 의존적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관계중독과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관계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내에서의 집착 성향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 있으며[23][32][34][38],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도식이 형성되어 관계에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 집착하고 매달리면서 상대

방의 폭력까지 감수함으로써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34][35]. 상대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용서해줌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36].

비록 관계중독과 심리적 폭력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일지라도 끊어내지 못하고 그 관계에 몰두하는 관계중독은 데이트 폭력 피해의 유의미한 예측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독과 심리적 폭력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데이트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폭력의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한 해결책 강구는 매우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20~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불안애착이 심리적 폭력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 이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관계중독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심리적 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와 예방효과를 높이고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의 건강한 데이트 관계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이 심리적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관계중독의 부분매개 [그림 1]을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반면, 불안애착이 관계중독을 통해서만 심리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완전매개 하는 [그림 2]를 경쟁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II.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도시 및 J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201명의 미혼 성인 남녀 중에서 지금까지 이성교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6명을 제외하고 총 195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조사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의 불편한 경험이 상기되어 정서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설문을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절차를 고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 한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남성 84명(43.1%), 여성 111명(56.9%)이었고, 연령대는 20대 133명(68.2%), 30대 62명(31.8%)이었다. 최종학력으로는 고졸 17명(8.7%), 전문대 졸업 23명(11.8%), 4년제 재학 53명(27.2%), 대졸 81명(41.5%), 석사 재학 이상 21명(10.8%)이었다. 지금까지의 이성교제 경험에 대해서는 1~2번이 46명(23.6%), 3~4번 64명(32.8%), 5~6번 46명(23.6%), 7~8번 10명(5.1%), 9~10번 9명(4.6%), 10번 이상 20명(10.3%)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2.1 불안애착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와 Brennan, 및 Waller[37]가 개발한 성인애착 유형 검사의 개정판(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을 김성현[3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불안애착과 타인에게 친밀함과 친숙함을 표현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회피애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애착 척도(18문항)를 제외한 불안애착 척도(18문

항)만을 사용하였다. 김성현[39]의 연구에서 불안애착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2.2 심리적 폭력 피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를 위해 Gells와 Straus[40]가 개발한 갈등척략 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 Scale: CTS)를 Straus, Hamby, Boney-McCoy 및 Sugarman[41]이 개정하고, 김정란[42]이 수정·보완한 갈등척략 척도(CTS-2)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연인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사용했던 갈등척략을 심리적 폭력(11문항), 신체적 폭력(7문항), 성적 폭력(4문항)으로 구분하여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폭력의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데이트 폭력 피해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에 따라 1점 “없음”에서 5점 “매우 자주”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김정란[42]의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 신뢰도(Cronbach's α)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2.3 관계중독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독 측정을 위해 Susan[43]이 개발하고 이상우[44]가 재구성한 관계중독(Relational Addiction Questionnaire-30: RAQ-30)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이성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이나 생각, 행동의 중독적인 특징에 대한 질문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관계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따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이상우[44]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2.0을 이용하여 연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불안애착과 심리적 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관계중독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AMOS 22.0을 활용

하여 구조방정식 검증을 실시하였다. 불안애착과 관계 증독 및 심리적 폭력 피해는 단일요인이기에 Russel 등 [45]의 제안에 따라 각 척도를 3개의 문항꾸러미 (Item-Parcel)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의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χ^2 , TLI, CFI와 RMSEA를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인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에서 최종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χ^2 값 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의 양호도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Bootstrap) 절차를 사용하였다[46]. 10,000개의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고, 신뢰구간은 95%였다.

III. 결 과

1. 주요 변인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불안애착, 관계증독, 심리적 폭력 피해의 기술통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표 1]을 살펴보면, 불안애착, 관계증독, 심리적 폭력 피해 간의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왜도 값과 첨도 값은 왜도는 절대 값 2를 초과하면, 첨도는 절대 값 7을 넘지 않으면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47].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은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 N=201

	1	2	3
1. 불안애착	-		
2. 관계증독	.57***	-	
3. 심리적 폭력 피해	.16*	.25***	-
M	2.98	1.87	1.59
SD	.98	.44	.46
왜도	.35	.69	1.68
첨도	-.45	.48	6.42

*** $p < .001$, * $p < .05$

2. 불안애착이 심리적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증독의 매개효과 검증

2.1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불안애착이 심리적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증독의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한 후 경쟁모형과의 χ^2 차이검증 및 CFI, TLI, RMSEA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랩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불안애착이 심리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계증독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모두 포함한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24, N=195) = 35.177, p=.066, CFI=.991, TLI=.987, RMSEA=.049$ (90% 신뢰구간 = .000 - .082). 불안애착이 심리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지 않은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역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25, N=195) = 35.538, p=.079, CFI=.992, TLI=.988, RMSEA=.047$ (90% 신뢰구간 = .000 - .079). 본 연구를 통해 지지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의 χ^2 차이 값은 .361이며 자유도의 차이 값은 1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χ^2 검증 결과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인 CFI, TLI, RMSEA를 함께 고려하여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χ^2	df	CFI	TLI	RMSEA (90%신뢰 구간)	χ^2 차이 검증
연구 모형	35.177	24	.991	.987	.049(.000-.082)	$\Delta \chi^2 (1)=.361$
경쟁 모형	35.538	25	.992	.988	.047(.000-.079)	

[표 3]에서 최종모형의 각 경로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불안애착은 관계증독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

로 나타났으며($\beta=.63, p<.001$), 관계증독 또한 심리적 폭력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9, p<.00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에서도 불안 애착에서 심리적 폭력 피해로 가는 직접 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beta=.06, p>.05$), 완전매개 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즉 관계증독은 불안애착과 심리적 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최종모형의 경로추정치

경로	비표준화계수	S.E.	표준화계수	C.R.
불안애착 → 관계증독	.509	.054	.634	9.395***
관계증독 → 심리적폭력피해	.029	.008	.292	3.684***

*** $p<.001$



그림 3. 최종모형

*** $p<.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수치임.

2.3 매개효과 검증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으면서 보다 정확한 신뢰구간을 산출하기 때문에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에 적합하다[46].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10,000번 시행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신뢰구간이 영가설의 값인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영가설을 기각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표 4]. [표 4]를 살펴보면, 불안애착과 심리적 폭력 피해 간의 관계에서 관계증독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38, p<.001$).

표 4. 간접(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간접효과 (95%의 신뢰구간)
불안 애착 → 관계 증독 → 심리적 폭력피해	.185 (.058 ~ .299)**

** $p<.01$,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수치임.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의 불안애착, 관계증독, 심리적 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불안애착이 심리적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증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애착과 관계증독, 심리적 폭력 피해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불안애착, 관계증독, 심리적 폭력 피해 간에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애착과 관계증독 간의 정적상관을 보고한 연구결과[29-31]와 일치하며, 불안애착과 심리적 폭력 피해 경험 간의 정적상관을 보고한 연구결과[6][17][19]를 지지한다. 불안애착과 데이트 폭력 피해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18][48][49]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또한 관계증독과 심리적 폭력 피해 간에도 정적상관이 나타났다는데, 이는 관계증독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35][36]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불안애착이 심리적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증독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애착이 심리적 폭력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증독을 매개하여 심리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애착을 가진 이들은 부정적인 내적 표상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내부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찾으려 하는데 [54][55], 이는 관계를 통해 심리적 허기를 채우고자 하는 관계증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은 연인관계에서 상대방과 극단적으로 가까워지길 바라면서도 그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한다[27]. 관계집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보다 혼자가 되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56], 상대방의 폭력까지도 수용하며 관계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33]. 즉, 불안애착을 지닌 사람들은 상대가 떠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그 관계가 폭력적일지라도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폭력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언하자면, 무엇보다도 불안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 폭력 피해를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관계중독 수준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 의하면 관계중독은 불안애착이 심리적 폭력 피해로 가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상쇄시킬 만큼 강력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관계중독적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면, 심리적 폭력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폭력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이 관계 속에서 중독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여 이러한 성향을 감소시켜주는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여겨진다.

관계중독은 아주 극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겉으로는 오히려 친근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비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중독에 비해 그 심각성이 간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독은 혼자 벗어나기 매우 어렵고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의 심리적 기제로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57]. 지금까지 성인애착과 관계중독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성인애착이 관계중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성 관계 갈등전략[29]이나 유기도식[30][35]과 같은 변인들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불안애착을 지닌 20~30대 성인들의 이성 관계 갈등 해소를 돕거나, 스스로가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인식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집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아차리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이들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기에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않으려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및 심리적 폭력 피해자들은 폭력의 원인을 상대의 잘못이 아닌 내부로 귀인하여 자신이 변화하고 노력하면 폭력적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믿으며 관계를 지속해나가는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6][58]. 따라서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통합하여 볼 수 있도록 함으로 폭력적인 관계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불안애착과 데이트 폭력 피해 간의 관련성[48][49]을 확인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60]. 불안애착을 형성한 이들이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함으로써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은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바람직성 등의 이유로 방어적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관찰, 면담 등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과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앞서 결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본 연구대상의 특성상 주요 변인인 불안애착, 심리적 폭력 피해, 관계중독의 평균 점수가 크게 높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설문대상의 성향이 편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구 결과의 타당화와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높은 수준의 증상을 보고하는 집단이나 변인들의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과 심리적 폭력 피해 간의 관계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성인애착과 심리적 폭력 피해 간의 관계에 대해선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향후 불안정한 애착이 심리적 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는지에 대한 탐색이 지속된다면, 심리적 폭력 및 데이트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그 심각성이 오래 가는 심리적 폭력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불안애착과 심리적 폭력 피해 간의 관계에서 관계중독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인 초기의 데이트 관계는 향후 배우자 선택이나 결혼생활의 만족, 성인기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61].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을 앞둔 20~30대 미혼 남녀의 심리적 폭력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들이 건강한 이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적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1] M. A. Straus,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Vol.10, pp.790-811, 2004.
-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pp.251-331, 2016.
- [3] 세계일보, "작년 데이트폭력으로 16명 숨져 '이별살인' 이제 현실...가해자 처벌은?, 2018년 03월 29일.
- [4] 최예슬, *데이트폭력 범죄억제를 위한 범죄 및 심리학적 고찰: 신고율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5] 박경은, "결혼직령기 남성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경험," *상담학연구*, 제18권, 제4호, pp.409-430, 2017.
- [6] 광성정, 우정희, 김남이, "성인여성의 성인애착, 책임귀인, 자아존중감이 친밀한 관계의 심리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1호, pp.75-84, 2018.
- [7] M. Kasian and S. L. Painter, "Frequency and severity of psychological abuse in a dating popul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7, No.3, pp.350-364, 1992.
- [8] J. E. Stets, "Verb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501-514, 1990.
- [9] 서울경제, '데이트 폭력' 20~30대가 58%...최근 10년간 재범률 77% 달해, 2016년 03월 06일.
- [10] Y. J. Ha and M. K. Seo, "A Study of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Dating Violenc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30, No.4, pp.79-103, 2014.
- [11] 손문숙, 조재연,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2016.
- [12] C. M. Dardis, K. J. Dixon, K. M. Edwards, and J. A. Turchik,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ng Men and Women and Associ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Vol.16, No.2, pp.136-152, 2014.
- [13] J. C. Babcock, N. S. Jacobson, J. M. Gttman, and T. P. Yerington, "Attachment, Emotional Regulation, and the Function of Marital Violence: Differences Between Secure, reoccupied, and Dismissing Violent and Nonviolent Husband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15, No.4, pp.391-409, 2000.
- [14] J. Bookwala and B. Zdaniuk, "Adult attachment styles and aggressive behavior with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Vol.15, No.2, pp.175-190, 1998.
- [15] D. G. Dutton, K. Saunders, A. Starzomski, and K. Bartholomew, "Intimacy-anger and insecure attachment as precursors of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24, No.15, pp.1367-1386, 1994.
- [16] J. E. Kesner, T. Julian, and P. C. McKenry,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to male violence toward female intimat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12, No.2, pp.211-228, 1997.
- [17] A. M. Mauricio and B. Gormley, "Male Perpetration of Physical Violence Against Female Partners The Interaction of Dominance Needs and Attachment Insecur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16, No.10, pp.1066-1081, 2001.
- [18] J. H. J and K. H. Seo, "Rela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Clingingness in Dating Relationships to Dating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5, pp.209-229, 2015.
- [19] 이승우, 남재성,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요인 검증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4권, 제4호, pp.53-72, 2018.
- [20] 송영주, 장현아, "애착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3권, 제1호, pp.111-140, 2017.
- [21] 도한나, *아동기 학대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과 낭만적 애착의 매개효과*

- 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22] 제오복, 김병석, 최희철, “성인애착과 결혼만족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폭력과 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7권, 제6호, pp.453-473, 2016.
- [23] 양승애, 서경현, “집착 성향과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 경계선 성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21권, 제10호, pp.315-336, 2014.
- [24] D. L. Haynie, T. Farhat, A. Brooks-Russell, J. Wang, B. Barbieri, and R. J. Iannotti,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among US adolescents: Prevalence, patterns, and associations with health complaints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53, No.2, pp.194-201, 2013.
- [25] G. Martin, 임금선 역,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 [When Good Things Become Addictions]*,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원전은 1990년에 출판).
- [26] S. Peabody, *Addiction to love: Over coming obsession and dependency in relationships*, Celestial Arts, 2011.
- [27] C. Hazan and P. R. Shaver,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 pp.511-524, 1987.
- [28] 김진희, “대학생의 성인애착 유형과 이성관계: 관계 중독, 친밀감 두려움, 대인관계 유능성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제25권, 제4호, pp.911-929, 2017.
- [29] 김지연, 심혜원, “불안정 성인애착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성관계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2호, pp.73-100, 2016.
- [30] 김하늘, 유제민, “성인애착, 유기도식 및 중독성격과 관계중독성 집착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9호, pp.485-507, 2017.
- [31] 이계선, 정남윤, “성인애착과 관계중독의 관계: 자기대상목구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29권, pp.31-57, 2013.
- [32] D. G. Dutton, *The abusive personality: Violence and control in intimate relationship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8.
- [33] J. Pearson, “Relationship dependent women: Their views on symptoms and recovery,” *Virginia Counselors Journal*, Vol.19, pp.3-13, 1991.
- [34] 이해원, *미혼여성의 데이트폭력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 우울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35] 이운연, 장현아,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2권, 제2호, pp.191-209, 2017.
- [36] 장시온, *관계중독, 자기 및 타인용서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37] R. C. Fraley, K. A. Brennan, and N. G. Waller,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8, pp.350-365, 2000.
- [38] 정구철, “연인관계에서의 집착과 반추적 반응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1호, pp.479-490, 2017.
- [39] 김성현,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0] R. J. Gelles and M. A. Straus, *Intimate violence: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bus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0.
- [41] M. Straus, S. Hamby, Boney-McCoy, and D. Sugarman,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Vol.17, No.3, pp.283-316, 1996.
- [42] 김정란,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43] P. Susan, *Addiction to Love. Random house*, Inc. New York, 2011.
- [44] 이상우, *관계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이론적 모형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45] D. W. Russell, J. H. Kahn, R. Spoth, and E. M. Altmaier,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5, No.1, pp.18-29, 1998.
- [46] P. E. Shrout and N. Bolger,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Vol.7, No.4, pp.422-445, 2002.

[47] S. G. West, J. F. Finch, and P. J. Curran,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Thousand Oaks: Sage, 1995.

[48] 김진화, "아동기 외상과 성인애착, 데이트 폭력의 관계," *모래놀이치료연구*, 제6권, 제2호, pp.67-87, 2010.

[49] 서백임, *대학생 남녀의 성인애착, 심리적 통제성, 성 역할 태도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50] 박진희, *성인 애착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 내현적 자기애와 자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51] 손다슬, *성인애착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 관계신념과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52] 최정환, *불안정 성인애착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애와 성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53] 허수진, *성인의 불안애착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통제행동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54] K. Bartholomew and L. M. Horowitz,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pp.226-244, 1991.

[55] N. L. Collins and S. J. Read,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pp.644-663, 1990.

[56] 이수현, *여대생의 대인불안, 대인관계유형, 낭만적 애착유형과 관계중독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57] 김세광, 홍혜영,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8호, pp.392-407, 2018.

[58] 이정은, *폭력적 데이트 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타당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59] J. M. Gottman and R. W. Levenson, "The timing of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2, No.3, pp.737-745, 2000.

[60] 심희정, 서미아,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애착손상 및 상태-특성 불안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1호, pp.133-145, 2015.

저 자 소 개

송 연 주(Yeon-Joo Song)

정희원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심리 및 상담심리 전공(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직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관계중독, ADHD, 애착

최 가 연(Ga-Yeon Choi)

정희원



- 2017년 3월 ~ 2018년 12월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연구조교
- 2018년 3월 ~ 2019년 2월 : 동신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인턴
- 2019년 2월 : 동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졸업
- 2019년 1월 ~ 현재 :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간제 청소년 동반자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박 대 순(Dae-Sun Park)

정희원



- 2017년 10월 ~ 현재 :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
- 2019년 2월 ~ 현재 : 동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 2019년 2월 : 동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졸업

〈관심분야〉 : 다문화상담, 조직심리, 청소년상담